

Value Add, SBS 목동 사옥 20년 역사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



내년이면 SBS가 목동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20년이 된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목동 사옥은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지금에도 2003년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다. 최근 여의도, 강남, 홍대를 중심으로 기존 오피스 공용 공간 일부를 상업시설로 증축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영본부 자산개발팀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와 임직원 편의 향상을 위해 2020년 10월 목동 사옥 저층부 활용 계획을 기획하고, 건축 설계와 인허가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목동사옥 Value Add 프로젝트’는 현재 노천 카페가 자리한 지하 1층 선큰(Sunken)과 벽천 공간을 증축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상업)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지상주차장은 보차 분리 동선을 확보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했고, 야외 휴게공간 환경 개선, 주차면 추가 확보, 차량 동선 계획 조정 등이 주요 사항이다. 실내 공간은 임직원이나 방문객이 편하게 미팅할 수 있고, 오목공원의 열린 뷰(Open-View)를 감상할 수 있는 식음 시설 중심의 테넌트를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증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업시설은 2021년 3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하 1층은 casual-dining(간편 요리점)과 편의점, 지상 1층은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 푸드, 지상 2층은 fine-dining(고급 요리점)을 계획하고, 테넌트 업체들과 입점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 일정은 7월 15일(금)부터 비산 먼지와 소음 방지를 위한 가림막 설치 후 일부 구조물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산개발팀은 임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벽천 카페를 지하 1층 실내 공간(舊 CU 편의점 자리)으로 이동하여, 7월 25일부터 정상 운영 가능토록 일정을 조율했다. 또한 “이번 증축 공사로 인해 소음과 통행불편 등이 예상되지만 임직원분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롭게 변신하는 목동 사옥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목동)
 용도 : 방송통신시설, 근린생활시설
 면적
 - 증축부 연면적 : 1,793.21m² (542.45평)
 - 공사면적 : 2,066.68m² (625.17평) ※ 외부공간 별도
 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일부)
 구조 :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증축부위 : 타워동 오목공원 측 선큰(Sunken) 및 선큰 상부
 공사기간 : '22. 7. 15 ~ '23. 5. 15 (10개월)
 공사수행
 - 감독자 : SBS 경영본부 자산개발팀
 - 설계자 : (주)그루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 감리자 :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주)다짐산업개발

SBS 금토드라마

오늘의 웹툰 김세정의 마법이 다시 시작된다

국내 최초 웹툰 업계의 이면 본격적으로 다뤄…… 7월 29일(금) 첫 방송



새 금토드라마 <오늘의 웹툰>이 7월 29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오늘의 웹툰>은 매일 '오늘의 웹툰'을 업로드하기 위한 웹툰 업계의 다이내믹 오피스 라이프, 그 세계에 발을 들인 유도 선수 출신 새내기 웹툰 편집자 온마음의 레벨업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서른이
지만 열일곱입니다>의 조수원 감독이 연출을 맡아, SBS 금
토드라마의 성공 계보를 잇는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내맞선>을 통해 로코퀸으로 등극한 김세정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네온 웹툰 편집부에 취업한 신입사원 온마음

역을 맡았다.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온마음은 큰 부상을 입고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포기한 인물. 하지만 선수 시절부터 유일한 낙이자 큰 위안이 됐던 '만화'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긍정의 아이콘이다.

최다니엘은 네온 웹툰 편집부 부편집장 석지형 역을 맡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영동한 농담을 던지거나 내기를 걸어 편집부 분위기를 풀어주는 인물로, '팩폭'(팩트 폭력)이 필요할 때는 확실히 펀치를 날리다가도 묵묵히 뒤에서 조력을 아끼지 않는 온마음의 든든한 사수이기도 하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의 완벽한 길라잡이인데, 현실에서는 길치, 방향치인 허당미도 있다.

남윤수는 IQ 150으로 엘리트 코스만 걸어온 엄친아 구준영으로 분한다. 유명한 IT 기업에 고득점으로 입사한 구준영은 신생 웹툰 서비스 부서에 배치되면서 처음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삶을 맛닥뜨린다. 동기인 마음과는 출신과 성향이 완전히 달라 적응이 안 되지만,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온마음 곁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제작진은 “<오늘의 웹툰>은 내가 좋아했던 웹툰 작품, 그 이면의 이야기, 즉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국내 드라마 최초로 웹툰 업계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그리는 만큼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넘사벽 국민 예능 <미우새> 300회!



2016년 8월 첫 방송을 시작한 국민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연출: 박종원/이하 <미우새>)가 7월 10일(일) 300회를 맞았다. 녹화 날, 간단하게 마련된 축하의 자리에 참석한 박정훈 사장은 “<미우새>가 6년 동안 모든 예능 프로그램

을 통틀어 시청률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 덕분이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앞으로 <미우새>가 출연진 평균 연령 기준, 세계 최고령 프로그램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아무쪼록 어머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한편, <미우새>가 300회까지 걸어온 과정을 수치로 되짚어보면, 2018년 12월 분당 시청률 32.2%라는 예능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2049 타깃 시청률로도 2017년 14.5%의 최고 기록을 남겼다.

올해는 지난 6월 19일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 20.6%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해 현재까지 주간 예능 시청률 1위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영상클립도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는데, 그 중 김종국이 헬스장에서 50kg 덤벨을 가볍히 드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478만 뷰를 기록, <미우새> TOP 클립 1위에 올랐다. 박종원 PD는 “<미우새>가 일주일의 마무리, 새로운 일주일의 시작에 웃음을 줬으면 한다”며 “시청자들에게는 ‘미우새’가 아닌 ‘고우새(고운 우리 새끼)’로 남길 바란다”고 300회 소감을 밝혔다.

월요 예능 최강자 <동상이몽 2> 5주년!



대표 부부 예능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이 5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7년 7월 첫 방송된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은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월요 예능 프로그램 전체 1위에 올랐고, 꾸준한 인기 속에 분당 최고 시청률

15.8%, 76주 연속 동시간대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독보적인 월요 예능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인소부부’라는 애칭을 얻으며 큰 사랑을 받은 인교진·소이현을 비롯해 자타 공인 최고의 사랑꾼 부부 최수종·하희라, 초현실 부부 노사연·이무송, 입양 스토리를 공개한 진태현·박시은, 유쾌한 티키타카 케미의 이지혜·문재완 등 무려 42쌍 부부들의 희로애락을 보여주며 진한 공감과 웃음을 자아냈다. 최근에는 아들 다섯과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임창정·서하얀, 역대급 ‘텐션이몽’의 신혼부부 앤디·이은주 등 그동안 쉽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부들의 일상을 최초로 공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명하 PD는 “선뜻 공개하기 어려운 부부 둘만의 이야기를 공개하여 프로그램을 있게 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시간과 품이 다른 포맷에 비해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관찰 프로그램임에도 누군가의 가족을 다룬다는 책임감 하나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스태프 여러분, 시즌제 예능 프로그램이 설 새 없이 나오는 세상에서 5년 동안이나 저희 프로그램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두루두루 고마움을 전한 뒤,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각오를 전했다.

7월 18일(월) SBS 라디오 개편 - 오후 4시~6시 강화

러브FM <뜨거우면 지상렬> 신설

‘어른이’들을 위한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안습’, ‘내 인생에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 등 독창적인 입담 스킬로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개그맨 지상렬이 SBS 러브FM(수도권 103.5MHz) <뜨거우면 지상렬>의 진행을 맡아 물오른 진행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 <뜨거우면 지상렬>은 ‘어른이’를 위한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다. 여러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타 지상파 라디오에서 접하기 힘든 자극적이고 뜨거운 소재를 다루는 ‘매운맛 라디오’를 지향한다.

패널도 비노의학과 전문의 ‘과추형’ 홍성우, 이혼전문 변호사 이인철, 교양, 예능을 넘나들며 활약 중인 과학자 겸 소설가 곽재식 등 전문가 패널에 레전드 작곡가 윤일상, ‘숫박스’ 김원훈, 아나운서 윤태진, 가수 박보람, 개그맨 박휘순, 허안나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윤의준 PD는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서 호감을 얻고 있는 친근한 이미지와, 정체되지 않은 신선한 입담을 가진 지상렬이야말로 최고의 라디오 진행자가 될 자질을 가졌다”고 전했다. <뜨거우면 지상렬>에서는 LP를 1만 장 이상 소장하고 있을 만큼 음악적 소양을 갖춘 지상렬의 선곡 센스도 엿볼 수 있다.

파워FM <황제성의 황제파워> 신설

활력 충전! 흥이란 게 휘몰아친다!



수많은 인기 개그 코너를 통해 만능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인 개그맨 황제성이 라디오 DJ로 나섰다. 6년간 파워FM(수도권 107.7MHz)의 오후 4시를 지켜온 <붐붐파워>가 막을 내리고, 7월 18일(월)부터 황제성이 진행하는 <황제파워>가 그 자리를 꿰찼다. 송경희 PD는 “청취자에게 활력을 선사했던 <붐붐파워>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한편, 황제성 특유의 ‘미친 연기력’을 십분 활용하여 두 시간 동안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황제성의 종합 부캐 라디오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황제파워>에는 황제성의 리코더 연주 실력을 만날 수 있는 [케니 팡], 황제성과 제작진이 색다른 대결을 펼치는 [황제성 vs. 제작진], 록뮤직에 조예가 깊은 황제성의 수준 높은 선곡을 만날 수 있는 [일간 황제성] 등 다채로운 코너들이 방송된다. 황제성의 빵빵 터지는 입담과 파워 넘치는 음악으로 타이틀 그대로 청취자에게 ‘황제의 기운’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황제성은 “청취자들이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정형화되지 않은 라디오를 만들고 싶다”며,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라 쓸데없는 코너는 하지 않고 재미있는 코너만 제대로 할 것”이라고 DJ로서의 각오를 유머러스하게 밝혔다.

밀당 없는 직진 로맨스

연애는 직진

8월 3일(수) 첫 방송

베트남 다낭에서 펼쳐지는 <골때녀> 멤버들의 ‘소울 메이트’ 찾기



SBS가 4부작 신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는 직진>(연출: 이환진)을 선보인다.

‘연애’와 ‘취미’가 합쳐진 리얼 직진 로맨스 <연애는 직진>은 공통의 취미를 가진 싱글 남녀가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며 ‘소울 메이트’를 찾는 과정을 담는다.

연애로 직진하기 위한 취미는 바로 축구. 여성 축구의 붐을 일으킨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의 멤버 최여진, 송해나, 최윤영, 유빈이 여성 출연자로 나선다. 남성 출연자로는 축구를 좋아하는 일반인 남성 4인이 출연해 특별한 데이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축구에 진심인 <골때녀> 멤버들이 연애에도 진정성을 담아 직진했다는 후문. 오직 골대를 향해 달렸던 네 사람은 과연 연애와 취미를 함께 즐길 ‘소울 메이트’를 찾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들의 4박 5일간 리얼 로맨스는 낭만의 휴양지인 베트남 다낭에서 펼쳐져 이목이 집중된다. 매력 넘치는 일반인 남성들과 <골때녀> 멤버들의 밀당 없는 직진 연애는 오는 8월 3일(수) 밤 10시 40분 <연애는 직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미, 양세형-제시 이어 MC로 나섰다!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 <선미의 쇼!터뷰>가 7월 14일(목) 공개됐다. <선미의 쇼!터뷰>는 <양세형의 쇼!터뷰>, <제시의 쇼!터뷰>를 제작한 모비딕이 야심 차게 준비한 새 오리지널 인

터뷰 쇼다.

<양세형의 쇼!터뷰>가 기발한 아이디어와 양세형의 톡톡 튀는 매력으로 중무장한 '공트 쇼'였고, <제시의 쇼!터뷰>가 제시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을 관찰하는 '리얼 버라이어티'였다면 <선미의 쇼!터뷰>는 선미의 진솔함과 차분함, 그리고 4차원 매력을 통해 게스트들의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딥 토크쇼'가 될 예정이다.

'고품격 글로벌 토크쇼'라는 타이틀을 내건 <선미의 쇼!터뷰> '프롤로그' 편에는 미국 NBC 방송국의 인기 오디션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거둔 글로벌 아티스트 알렉사(Alexa)가 찾아왔다. 화려했던 오디션 기간의 뒷이야기와 어디에서도 이야기한 적 없는 알렉사의 개인사는 물론, 알렉사와 선미의 K-POP 댄스 대결도 담겨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 2회 게스트로 새 앨범 발매를 앞둔 '효린'과 글로벌 대세 아이돌 '에이티즈' 촬영을 마친 <선미의 쇼!터뷰>에, 컴백을 준비 중인 가수들과 예능인들은 물론 영화 개봉을 앞둔 특급 배우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 시작부터 '핫'한 <선미의 쇼!터뷰>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모비딕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글로벌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SBS 디지털뉴스랩

콘텐츠 커머스에 도전 중인 스브스뉴스 -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 브랜드 '175플래닛' 론칭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한 커머스들은 주로 브랜딩보다는 짧은 바이럴 영상에 광고비를 많이 투입해 개별 제품 판매량을 높이는 전략인데, 저희는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환경에 친심인 콘텐츠를 만들어 채널을 키우고, 브랜딩을 탄탄하게 하면서 팬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줄이고 브랜드와 제품 신뢰도는 높이는 거죠.

175플래닛은 성장 중!

론칭 초반에는 완전 맨땅에 헤딩이라 어려움투성이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자사물 평균 월 매출만 3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초엔 여의도 더현대 팝업 스토어에 입점했고 얼마 전 오늘의집에서도 브랜드관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단계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곧 다른 1030 타깃 대형 커머스 플랫폼에도 입점합니다. 이외에 제주, 부산, 광주 등 지역 곳곳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해 있고요.

안녕하세요. SBS디지털뉴스랩 크리에이티브 사업부문 175 플래닛 유닛 리더 김혜지 PD입니다. 유닛원은 크리에이티브 사업 부문 김태화 총괄 디자이너와 콘텐츠 마케팅 담당 권수연 PD, 제품 기획 담당 이채현 MD, 콘텐츠 제작 담당 이세라 인턴입니다. 그 외에도 운영 및 정산 담당 SBS디지털뉴스랩 경영기획팀 남승훈 팀장, 박미림 사원이 함께합니다.

175플래닛을 소개합니다!

175플래닛은 단 하나뿐인 지구와 나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포함한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175플래닛이라는 이름은 지금 속도대로 자원을 쓰고 버리면 지구가 1.75개 필요하다는 한 환경 단체 보고서에서 따왔습니다. 지난해 4월 첫 제품 '루티너 키트'로 브랜드를 론칭했고, 이후 선거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지갑, 업사이클링 튜브 짜개, 비건 설거지 비누, 뱀부 타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론칭하게 됐냐면요

스브스뉴스 팀에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주요 타깃층, 특히 10~20대가 환경 문제에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제품은 아직 다양하지 않죠. 이런 아쉬움을 해소시키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는 기획으로 출발했습니다. 하현중 대표님도 원래 우리가 잘하는 것, 즉 콘텐츠 제작 스킬과 스브스뉴스, 문명특급, 오목교 전자상가 등 기존 콘텐츠 IP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고요.

역시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작년 재보궐 선거 때 한 번 걸리고 그냥 버려지는 선거철 폐현수막으로 지갑을 만든 게 그 시작입니다. 상품만 만든 게 아니라 스브스뉴스 네이처돌이 환경 캠페인과 콜라보를 펼쳐 폐현수막 환경 문제를 함께 짚었습니다. 캠페인 덕에 오픈한 지 며칠 만에 400개가 완판됐습니다. 기존 커머스들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브랜드를 키워 나가고

목표가 너무 많아요★

지난달에 론칭한 뱀부 타올이 특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은 신규 제품들을 빠르게 확대하고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사업부문에서도 오리지널 콘텐츠 IP를 더 확장해 시너지를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기업 B2B 거래를 확대해 매출 스케일을 키우고 중장기적으로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상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는 것도 많은 목표 중 하나입니다.

여러 목표에 다다르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SBS미디어그룹에서도 예뻐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그룹사 임직원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5플래닛 홈페이지 175planet.com/](http://175planet.com/)

[175플래닛 인스타그램 @175planet](https://www.instagram.com/175planet)